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사례분석과 교육적 제언 — 개방형 설문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

홍 설 영
(한국외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는 현직 회의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수행 환경과 방식을 파악하여 문장구역 교육의 필요성 및 영-한, 한-영 문장구역 교육의 구성요소를 간접적으로나마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활자화된 텍스트의 구두적 해석인 문장구역 혹은 시역은 통역 학습자들에게 낯설지 않다. 통번역대학원 입시 전문 사설 학원에서는 ‘sight translation’의 약칭인 ‘싸이트’라는 명칭 하에 독해의 속도를 증진코자 입시 준비생들에게 문장구역 연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통번역대학원의 재학생들 중 통역 수업의 일환이든 개인 스터디 차원에서든 문장구역을 연습한 경험이 있거나 문장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통역

학습자들은 문장구역이 무엇인가에 관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들이 접한 문장구역 연습의 방식과 목적은 명확하지 않거나 여러 갈래이다. 학습자가 문장구역을 접한 환경 혹은 수강한 과목의 교강사에 따라 연습 방식과 연습량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은 전공필수과목의 일환으로 문장구역을 석사 1, 2학년의 [A-B, B-A 순차통역·문장구역] 과목에 편입시키고 있다. 동 대학원의 홈페이지의 교과목 개요는 문장구역 과목에 대해 “학생들로 하여금 사전준비가 전혀 또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출발어에서 도착어로 구두번역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언어별로 독특한 어휘 및 문장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도착어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훈련한다”로 소개한다. 한편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의 영어통번역학부는 영어통번역심화전공 교과과정에서 현재 영-한 및 한-영 시역을 과목으로 다루는데, 교과목개요는 “단순히 문장대문장 또는 단어 대 단어로의 치환이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단위’의 개념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 구두번역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독특한 표현이나 문장구조, 나아가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게 되고 해당 텍스트 부분을 도착어인 우리말로 재표현하기 위한 전략을 습득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영어통번역학과 역시 문장구역을 1학년 1, 2학기의 [문장구역 및 통역입문] 과목에서 다루고 있다. 이 모든 사례에서 문장구역이 독자적인 통역 기술로 다루어지는지의 여부는 다소 모호하다. 그러나 상기의 교과목개요 문구를 통해, 문장구역은 통번역 교과에서 통역에 갓 입문한 학습자들의 통역 능력 배양 및 증진을 위한 하나의 연습 기법으로 활용됨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장구역은 순차통역을 위한 하나의 사전 연습이자(곽중철 2012; 정혜진 외 2004; Ilg & Lambert 1996), 동시통역을 위한 선수 과목으로서도 널리 인식된다(Lambert 2004; 방교영 2003). 문장구역은 통역의 유형을 불문하고 통역 연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원천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여 목표 언어로 발화하는 전략을 습득하기 위한 통역의 사전 혹은 병행 연습인 것이다.

한국외대 외에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몬트레이 통번역대학원, ESIT 등 국내외 유수의 통번역 교육 기관이 문장구역을 교과목으로 채택하므로 문장

구역의 연습 효과와 가치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합의가 존재하는 듯하다. 그런데 문장구역을 통역과목에 편입시킨 대학원의 경우, 문장구역은 대개 통역을 위한 하나의 보조적 연습 기법으로 간주되므로 수업의 주된 활동이 아니다. 즉 통역 수업이 본격적인 통역 실습으로 진행됨에 따라 교강사와 학습자에게 문장구역은 수업시간을 할애하기에는 버거운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교강사는 재량에 따라 통역 연습을 더 중시한 나머지 문장구역 연습 자체를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교과목에서 문장구역이 통역을 보조하는 하나의 부수적이고 선택적인 활동으로만 간주됨에 따라, 통역사의 일상에서 수행되는 하나의 통역 유형이자 기술로서의 문장구역의 지위가 수업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장구역에 대한 정의는 광의와 협의로 분류가 가능하다. 전자인 광의의 문장구역은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 모든 형태의 통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곽중철 2012: 103). 즉 광의적 문장구역은 텍스트가 있는 통역(interpreting with text)를 아우르는 하나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협의의 문장구역이란 연사의 발화가 낭독용 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고 통역사 역시 텍스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를 눈으로 따라가며 목표 언어로 발화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히메네스 이바스(1999: 188)는 사전 준비 없이 텍스트를 보는 즉시 시행되는 문장구역이 엄밀한 의미의 ‘정식 문장구역(sight translation proper)’이라 하였다. 광의이든 협의이든 문장구역은 하나의 독자적인 통역의 유형으로서 그 입지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통역이 하나의 실무 기술이며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기술의 전수가 대부분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장구역 교육의 정도와 목표 및 효과적인 교수법을 논하기 위해서는 실무 환경에서 현직 통역사들이 접하는 문장구역의 구체적인 형태와 빈도 및 이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문장구역 교육 방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현직 통역사 31인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서 문장구역은 상기한 광의의 문장구역으로 정의가 되었으며, 문장구역과 관련된 이들의 경험과 의견은 의미의 범주를 나누는 코딩에 따라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을 토대로 말미에는 문장구역 교육에 관한 제언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2. 문장구역의 실무 활용과 교육

통역 실무에서는 통역사가 발주자로부터 회의 자료를 받아 통역에 임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런데 통역사에게 낭독 원고 등 시각 자료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텍스트의 유형과 배포된 시점, 연사의 낭독 유무 및 낭독 속도, 그리고 동시, 순차, 위스퍼링이라는 통역 유형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통역사가 수행하는 문장구역의 성격과 주의력은 상이하다. 가령 낭독용 원고가 주어지면 연사가 한글자도 빠짐 없이 원고를 그대로 읽는 경우, 통역사는 활자 텍스트 하나하나에 주목하여 적힌 의미 그대로를 목표 언어로 전환하는 협의의 문장구역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시각 자료가 발언의 요점만을 적은 요약 자료이거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일 경우, 통역사는 시각과 청각에 주의력을 균형 있게 안배하여 통역해야 한다. 또한 동시통역 상황에서 텍스트가 주어진 경우 통역사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성화시켜야 하는 반면, 순차통역의 상황에서는 연사가 발화하는 동안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성화하다가 통역사가 발화를 하는 도중에는 시각만을 활용하게 된다. 한편 텍스트가 얼마나 신속하게 통역사에게 전달되었는가에 따라 문장구역은 번역에 근접한 행위가 되거나 사전준비가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즉시 수행해야 할 고도의 기술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눈으로 보며 해석을 하는 문장구역이라는 행위의 범주 내에서도, 실무 환경의 여러 요인에 따라 통역사에게 요구되는 인지 능력은 실로 다양하다. 대부분의 경우 통역 상황은 연사의 존재를 상정하므로, 통역사의 문장구역 행위 역시 대개 시각과 청각을 모두 동원하여 수행된다.

그렇다면 문장구역에 대한 심층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에 앞서, 문장구역과 청취에만 적적으로 의존하는 엄격한 의미의 통역이라는 두 행위의 상보성과 개별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통역 능력 증진을 위한 보조적 학습 수단으로서 텍스트를 보면서 목표 언어로 해석하는 방식의 문장구역 연습이 통역을 간접 경험하는 좋은 훈련법이라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간다. 시각과 청각을 불문하고 통역과 문장구역 모두 입력된 원천 언어를 즉각적으로 목표 언어로 해석하는 행위이므로, 한쪽 연습이 다른 유사 행위의 숙련에 기여할 수 있는 둘 간의 상보성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문장구역 능력과 통역 능력이 반드시 비례한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려운데, 이는 학습자의 독해와 청취 능력

이 반드시 비례적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해외체류경험의 유무와 기간 및 이들의 독서량과 인지 능력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한 개인의 독해와 청취 능력 혹은 문장구역과 통역 능력 간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가령 국내에서만 영어를 접한 학생들은 신속한 독해를 요하는 문장구역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청취로만 원천 언어를 이해해야 하는 통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통역으로서의 문장구역이란 연사가 발언할 때 청취에도 주력함과 동시에 자료의 시각적 입력에 주의하여 해석을 하는 고차적인 인지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통역과 문장구역은 상보성 이상으로 개별성을 지닌 행위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장구역은 다양한 상황에서 실무 통역의 한 유형으로서 기능한다. 서구의 법정 통역(Edwards 1995)과 의료 통역(Phelan 2007)에서 문장구역은 공식화된 통역 유형이며, 그 외에도 문장구역은 외교 통역과 학교 (school district) 통역(Standfield 2008), 커뮤니티 통역(Wadensjö 1998), 교회의 성서적 담화(Karlik 2010) 등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한편 정식 번역을 의뢰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객이 통역사에게 문장구역으로 해석의 녹음을 요구하는 실무 형태도 존재한다(Biela-Wolonciej 2007). 통역의 여러 상황 및 주제와 무관하게, 낭독용 원고이든 파워포인트 자료이든 시각 텍스트가 수반되어 통역사가 이에 의존하여 해석을 하는 모든 경우 통역사는 광의의 문장구역을 수행한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문장구역은 회의 통역사의 실무를 구성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다. 실무 기술로서 문장구역의 중요성은 통번역 석사 교과과정 고찰 및 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된 일련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방증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필요 분석을 실시한 정철자(Jeong 2005)에서는 매쿼리 대학교 (Macquarie University) 통번역 석사 졸업생인 응답자들이 통역 관련 13가지 기술 항목 중 문장구역을 직접 수행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로 꼽았다. 또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강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안인경(2007)의 연구 결과, ‘과목의 필요성’ 항목에서 62.4%로 문장 구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한편 문장구역 교육에 관한 연구는 초침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실무 통역사 혹은 교육자들이 문장구역의 교수법과 방식에 대해 서술하는 처방적 연구이다(양청수 2007; 정혜연 2007; Sampaio 2007; Erickson

외 2006; Ersozlu 2005; Gile 1995; 안희영 1993; Weber 1990; 조재영 1990). 이들 연구는 신속한 독해와 텍스트 분석, 목표 언어로의 재구성 등을 문장구역의 능력으로 꼽으며 문장구역의 분절 전략을 보편적으로 다룬다. 또한 교수자의 정기적인 시연 등의 교수 원칙(Weber 1990), 문장구역 텍스트에 대한 준비 전략(Gile 1995), 사전 연습(Ersozlu 2005), 수업 계획과 평가(김혜림 2011; 양청수 2007) 등을 언급한다. 둘째, 통번역 커리큘럼의 맥락에서 문장구역 교육을 논하는 연구이다(조상은 2011; 신경선 2009; 김선아 2005; 정혜진 외 2004). 학부 통번역 커리큘럼의 틀 내에서 문장구역을 조명하는 이들 연구는 멀티미디어 어학실을 활용한 수업 운용의 기술적 측면(정혜진 외 2004), 통역 연습기법으로서의 분절과 재구성 전략(신경선 2009; 김선아 2005), 설문을 통한 학습자의 인식 및 수업 효과 조사(조상은 2011) 등의 여러 각도에서 문장구역 교육을 다룬다.

문장구역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문장구역을 조명하고 있기는 하나, 문장구역이 수반되는 통역 및 문서의 종류와 회의 상황 등에 대해 명확히 구분 짓고 있지는 못하다. 문장구역의 전략과 방식 등에 대한 교수법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교육이란 실무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교수법에 대한 구상을 하려면 우선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수행 환경과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를 위한 출발이다.

3. 설문조사 방법

3.1. 응답자 정보와 설문지의 구성 및 분석법

본 설문조사는 2012년 5-6월에 걸쳐 서울에서 활동하는 현직 통역사 31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문장구역 실무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경력과 근무 형태를 지닌 통역사들이 설문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평균 통역 경력은 6년이며, 현 근무 형태기준으로 프리랜서 12명, 프로젝트 통역 2명, 인하우스 통역사 17명이다. 설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응답자들에게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었으며, 응답자들은 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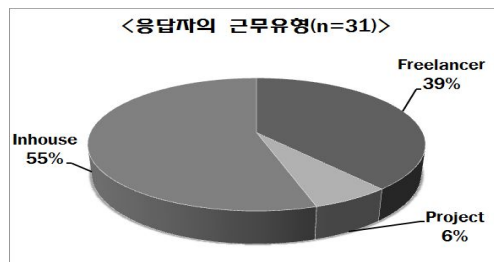
으로 답변을 작성하였다. 설문은 문장구역에 대해 텍스트를 보며 하는 통역이라는 광의의 정의를 내렸으며, 순차통역과 동시통역 상황에서 수행되는 문장구역에 대해 선행 연구(양청수 2007)의 ‘순차통역식 문장구역’과 ‘동시통역식 문장구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설문 응답자들의 정보는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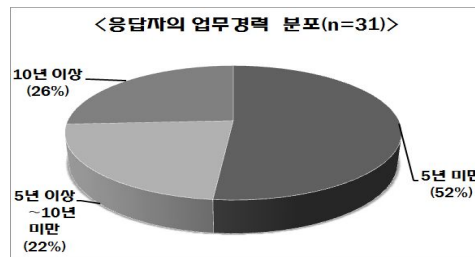
<표 1> 응답자 기본 정보

人	성별/연령	AB	경력	人	성별/연령	AB	경력	소속	人	성별/연령	AB	경력	소속
F1	여/32	한영	5	P1	여/38	한영	5	통신사	II1	여/30	한영	1.5	공사
F2	여/29	한영	4.5	P2	여/31	한영	4	통신사	II2	남/38	한영	3	사기업
F3	여/33	한영	1.5	II	여/37	한영	11	컨설팅	II3	여/33	한영	3.5	공기업
F4	여/28	영한	4	I2	여/28	한영	3	사기업	II4	여/36	한영	11	은행
F5	여/37	한영	11	I3	여/28	한영	3.3	은행	II5	여/32	한영	2.5	사기업
F6	여/35	한영	9	I4	여/36	한영	7	정부	II6	여/27	한영	2	공기업
F7	여/39	한영	11	I5	여/36	한영	1.2	은행	II7	남/29	한영	1.5	군지기
F8	여/35	한영	11	I6	여/34	한영	11	정보사					
F9	여/38	한영	13	I7	여/33	한영	5	정부					
F10	여/33	한영	11	I8	여/32	한영	3.3	정부					
F11	여/33	한영	9	I9	여/30	한영	3.5	사기업					
F12	여/33	한영	9.3	II0	여/29	한영	2	증권사					

F= freelance, P=project, I=in-house, AB=AB언어, 경력: 년 기준

<그림 1> 응답자 근무유형과 업무 경력 분포





Freelance=프리랜서, Project=프로젝트, Inhouse=인하우스

연구자는 설문지의 내용 구성을 위해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1차 예비설문을 5인의 통역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고자 설문 질문 및 답변에 대해 동료 연구자들과의 검토(peer debriefing) 과정을 거쳐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질문지가 개발되었다. 최종 설문은 총 13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질문의 내용은 문장구역 실무 경험, 수행의 어려움, 교육이라는 주요 구성 지표에 근간하여 구성되었다. 분석을 위해 데이터는 문장구역 실무 경험, 수행의 어려움, 교육이라는 3개 상위 범주로 분류되고 그 중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 및 교육과 관련된 답변이 집중적인 질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설문지 구성 내용

구성 지표	내용	문항수
실무경험	문장구역 수행 빈도, 연사의 낭독 유무, 문서종류 및 통역 유형에 따른 수행 빈도의 차이	4 문항
수행의 어려움	수행 직전 텍스트 받는지의 여부 및 텍스트가 전달되는 이유, 통역 유형 별 수행의 난관	3 문항
문장구역 교육	석사과정 교육 경험 및 필요성, 교수법적 제언	6 문항
총		13 문항

3.2. 문장구역 실무사례 분석

응답자들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통역 업무에서 문장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5.4%로 나타났다. 프

리랜서, 프로젝트, 인하우스 세 집단 간에 문장구역 수행의 비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 응답자 집단 별로 문장구역 실무 빈도는 각각 전체 통역의 78%, 32.5%, 25.7%를 나타내어 프리랜서 집단의 문장구역 실무 수행 빈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장구역이 가장 빈번히 수반되는 통역 유형에 대한 질문에, 동시통역(17명), 동시통역과 순차통역(6명), 위스퍼링(3), 동시통역과 순차통역과 위스퍼링(2), 동시통역과 위스퍼링(2명), 순차통역과 위스퍼링(1명)이라는 답변이 도출되었다. 응답자들의 근무 유형에 따라 문장구역 시 접하는 통역 유형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근무 유형별 문장구역 시 접하는 통역 유형

구분	통역 유형												합계		
	순차			동시			위스퍼링			차이없음					
	인원	비중1	비중2	인원	비중1	비중2	인원	비중1	비중2	인원	비중1	비중2	인원	비중1	비중2
F				10	27.8%	83.3%				2	5.6%	16.7%	12	33.3%	100.0%
P	1	2.8%					1	2.8%	50.0%				2	5.6%	100.0%
I	3	8.3%	13.6%	12	33.3%	54.5%	3	8.3%	13.6%	4	11.1%	18.2%	22	61.1%	100.0%
합계	4	11.1%	11.1%	22	61.1%	61.1%	4	11.1%	11.1%	6	16.7%	16.7%	36	100.0%	100.0%

F= freelance, P=project, I=in-house, 비중 1: 전체응답인원(36건 (중복응답 포함)) 대비 비중, 비중 2: 근무유형별 전체응답(F=12건, P=2건, I=22건(중복응답 포함))대비 비중

한편 응답자의 96.7%는 문장구역 수행 시 연사의 낭독이 수반된다고 답하였으며, 연사의 낭독 없이 수행되는 문장구역으로 응답자 I17은 상사가 서신과 이메일 등에 대한 구역을 요구한다고 답하였다. 문장구역 시 접하는 텍스트 유형과 관련하여, 높은 빈도의 순으로 파워포인트(응답수: 25), 연설원고(10), 말씀요지(5), 학술논문(5), 보고서(2), 회의록(1), 큐시트(1), 엑셀파일(1), 서신 및 이메일(1)이라는 답변이 도출되었다. 파워포인트의 경우 근무 유형과 무관하게 빈도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학술논문에 대한 답은 프리랜서 통역사 집단에서만 도출되었다. 근무 유형에 따라 문장구역 시 접하는 문서 종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표 4>와 같다.

〈표 4〉 근무 유형 별 문장구역 시 접하는 문서 종류

구분	텍스트 유형									근무유형 별 합계	
	PPT	연설 원고	말씀 자료	학술 논문	보고서	회의록	큐시 트	엑셀	서신/ 이메일		
F	응답수	10	5	4	5	-	1	-	-	-	25
	비중1	23.8%	11.9%	9.5%	11.9%	-	2.4%	-	-	-	59.5%
	비중2	40.0%	20.0%	16.0%	20.0%	-	4.0%	-	-	-	100.0%
P	응답수	2	-	-	-	-	-	-	1	-	3
	비중1	4.8%	-	-	-	-	-	-	2.4%	-	7.1%
	비중2	66.7%	-	-	-	-	-	-	33.3%	-	100.0%
I	응답수	3	5	2	-	2	-	1	-	1	14
	비중1	7.1%	11.9%	4.8%	-	4.8%	-	2.4%	-	2.4%	33.3%
	비중2	21.4%	35.7%	14.3%	-	14.3%	-	7.1%	-	7.1%	100.0%
합 계	응답수	15	10	6	5	2	1	1	1	1	42
	비중1	35.7%	23.8%	14.3%	11.9%	4.8%	2.4%	2.4%	2.4%	2.4%	100.0%
	비중2	35.7%	23.8%	14.3%	11.9%	4.8%	2.4%	2.4%	2.4%	2.4%	100.0%

F = freelance, P=project, I=in-house, 비중1 : 전체응답건(42건, 중복응답포함) 대비 비중, 비중2 : 근무유형별 응답건수(F=25건, P=2건, I=14건) 대비 비중

한편 실무에서 텍스트가 문장구역 수행 직전 주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3.8%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텍스트가 긴박하게 전달되는 이유는 1) 연사가 현장에 도착하여 회의 직전에 자료를 배포한 경우, 2) 마지막까지 자료 내용에 수정이 가해진 경우, 3) VIP의 연설 등 보안상의 이유로 사전에 자료 공유가 금지된 경우, 4) 주최측의 준비성과 경험 부족, 5) 고위직 연사인 관계로 자료를 요청하기가 어려움 등으로 정리되었다.

4. 질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과 교육 경험 및 교수법적 제언에 관한 응답자의 자유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설문지의 답변을 반복적으로 정독하면서 응답자들의 논지를 분석하여 답변을 세부 범주화하는 질적 분석의 코딩 작업을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으로, 코딩은 답변에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는 개방 코딩(open coding)과 개방 코딩의 결과로 도출된 하위 범주를 중심 현상에 따라 재조합시키는 축 코딩(axial coding)의 분석 단계를 거쳤다.

4.1. 문장구역 수행에 어려움을 가하는 요인

문장구역 교수 및 학습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문장구역 수행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들에게 통역 유형 별로 느끼는 수행 상의 어려움을 물었다. 문장구역의 유형이 순차통역식인지 동시통역식인지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하위 범위가 도출되었는데,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던 순서대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1. 순차통역식 문장구역

1) 연사가 텍스트에 내용을 가감할 때 노트테이킹과의 병행이 어렵다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이란 순차통역의 상황에서 통역사가 연사의 말을 청취하고 노트테이킹을 하는 대신, 주어진 원고를 눈으로 보면서 연사의 낭독 후 통역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회의 상황에서 모든 연사들이 반드시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연사는 얼마든지 원고에 내용을 가감하거나 변경할 재량을 누리며, 이때 통역사는 끊임없이 원고의 내용과 연사의 발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연사가 도중에 내용을 변경하거나 가감할 시, 통역사는 문장구역을 중단하고 전적으로 청취와 노트테이킹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응답자 중 9명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수행의 혼란과 어려움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연사가 연설 대본에서 벗어날 경우 노트테이킹과 병행해야 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F3)

“문장구역을 하다 보면 노트테이킹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연사가 텍스트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I3)

“갑자기 연사가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그 부분은 그냥 노트테이킹 하면서 통역하는데 다시 원고로 돌아가면 어딘지 찾는 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결국 못 찾아서 우왕좌왕하기도” (I13)

“연사가 내용을 건너뛰거나 견해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원문과 달라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연사의 발언을 노트한 것과 텍스트 사이를 오가야하는 기술적인 상황이 늘 어렵다” (F12)

“연사가 텍스트를 모두 읽지 않고 중간에 건너뛰거나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건너 뛰는 부분을 텍스트에 표시해야 하고 덧붙이는 것은 노트를 별도로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 (P2)

“순차 노트테이킹을 하면서 텍스트에 언급된 부분을 순서대로 적고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 (I1)

“연사가 텍스트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으나 없는 내용을 추가할 경우 텍스트와 노트를 번갈아가며 봐야하는데, 집중력이 매우 흐트러진다” (I8)

2) 텍스트의 가시성이 의미 파악과 수행을 방해한다

문장구역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에 따르면 문장구역 시 시각적 언어간섭이 수행의 방해 요인이 된다. 이는 독해와 청취라는 행위의 언어처리적 기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본 설문 응답자 4명 역시 텍스트를 통한 시각적 입력이 이해 및 수행에 간섭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답하였다.

“텍스트가 있으면 귀에 덜 의존하고 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용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P2)

“생소한 내용의 경우 원고만 보고 있으면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기보다 글자만 눈에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음” (I13)

“텍스트라는 추가적인 요소가 하나 더 생겨,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연사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어려워지고 연사를 잘 안 보게 되며,

내용을 꼼꼼하게 통역하는 대신 읽는 듯한 느낌을 주어 통역이 자연스럽게
지 못할 때도 있다” (I8)

3) 한영 순차에서 한국어 텍스트에 기인한 어려움이 있다

특히 한·영 순차통역의 상황에서, 주어진 텍스트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한국어의 언어적인 특징으로 인해 이해 및 해석이 어렵다는 점을 응답자 3명이
언급하였다.

“한국어 표현/문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많음” (F7)

“한국어 텍스트는 함축적이라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해 문장구역이 불
가능한 경우가 많다” (I11)

“한국어 문장이 긴 경우, 주어가 너무 많은 경우, 한자어가 많고 명사형으
로 적혀 있어 함축적인 경우 힘들다” (I16)

4) 참고 자료의 유형이 여러 가지일 때 혼란스럽다

회의 통역의 상황에서는 연사가 본인 참고용으로 낭독 원고 혹은 말씀 요
지를 지참하고 청중을 위해 슬라이드를 띄우는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동시에 활
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통역사에게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주어지면 통역의
와중에 이 모두를 눈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이때 혼란을 느낀다고 응답자 2명
이 답하였다.

“PPT 자료도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를 읽을 때 두 가지 모두를 참고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음” (F6)

“자료가 많을 경우 연사가 순서대로가 아닌 다양한 자료를 오가며 빠른
속도로 읽을 때, 자료를 찾는 데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F11)

5) 완벽한 통역에 대한 부담감과 순차통역 상황으로 인한 긴장감을 느낀다

일반적인 순차통역 상황에서 통역사의 목표는 한치의 누락도 없이 통역을 완수하는 것이지만, 청취 상의 실수로 인해 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중대한 누락이 생기면 통역사는 통역을 잠시 중단하고 연사에게 실례를 무릅쓰고 빠진 내용을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중대한 누락이 아니고 맥락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내용이라면 통역사는 요약 등의 전략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 그런데 텍스트의 전문이 주어지는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에서는 내용의 누락은 통역사의 독해능력 부족으로 인식되기 쉽다. 이 때문에 낭독용 원고가 주어지고 연사의 발언이 모두 끝나 청중이 통역사의 발화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상황에서, 통역사는 한치의 오차나 누락도 없는 정확한 통역에 대한 부담과 상황에 기인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이점을 응답자 중 2명이 지적하였다.

“텍스트가 주어져서 더 완벽하게 세부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통역해야 한다는 부담감” (F5)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초조해짐” (I17)

4.1.2. 동시통역식 문장구역

1) 연사의 발화가 텍스트의 내용에서 벗어날 때 주의력을 분할하기가 버겁다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에서는 연사의 발화가 원고의 내용에서 이탈하면 통역사는 연사의 말을 끝까지 듣고 비편 내용을 노트한 후 통역하는 시차의 여유를 어느 정도 갖는다. 그러나 동시통역의 상황에서 연사가 원고와 다른 내용을 말하면 통역사는 극도로 짧은 시차 내로 시각에서 청각으로 모드를 전환해야 하며, 고도의 주의력을 발휘하여 원고의 내용과 임기응변적 발화를 오가는 연사의 말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동시통역식 문장구역은 여러 인지노력 간

의 분할과 조율에 대한 부담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의 통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답자 중 13명은 이 같은 주의력의 분산과 극도의 인지적 부담을 호소하였다.

“연사가 텍스트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은 상관이 없으나 없는 내용을 추가할 경우 텍스트와 노트를 번갈아가며 봐야하는데, 집중력이 매우 흐트러진다” (I8)

“통역을 하는 동시에 눈은 텍스트를 보고 귀는 연사의 말을 듣고 머리로 는 달라진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에 순간적인 판단력과 순발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빨리 이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I4)

“텍스트가 있는 경우라도 연사가 텍스트를 100% 따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흥적 발언에 대비해야 하며” (I7)

“연사가 자료 외적인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집중해야” (I9)

“연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는 어려움” (F5)

“단순하게 생각해서 동시통역을 듣기+ 말하기로 정의 내린다면 문장구역은 듣기+말하기+읽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사가 갑자기 준비된 내용에서 이탈하면 통역사는 동시통역 모드에서 문장구역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며, 모드 전환의 과정에서 의미 유실이 발생할 수 있음” (F4)

“연사가 긴 논문을 그대로 읽다가 부분부분 건너뛰면 어디를 읽었고 어디를 뺐는지 파악하면서 통역은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부담스러움” (F10)

“연사가 논문의 중간 중간을 발췌하여 읽어 내려갈 때, 수십장에 달하는 논문 중에서 연사가 읽는 부분을 찾으려다 보면 오히려 더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F1)

“텍스트를 낭독하다가 중간 중간 임의로 내용을 누락하고 가는 경우, 집중

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을 누락했는지 판단 못하고 낭독하지 않은 내용을
통역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어 특히 신경 쓰인다.” (F12)

2) 연사의 낭독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들다

동시통역을 순차통역과 대별하는 최대 요인은 시간 압박이다. 연사의 발화와 통역사의 해석 간에 고작 몇 초의 여유 밖에서는 주어지지 않는 동시통역 상황에서, 통역사는 그만큼 빠른 처리 속도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부담을 심화하는 것이 바로 연사가 원고를 낭독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동시통역식 문장구역이다. 이는 사람의 발화 속도가,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에서보다 원고를 읽어내려 가는 상황에서 더 빨라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답자 12명은 연사의 빠른 낭독 속도 혹은 통역사 본인의 처리 속도의 문제를 동시통역식 문장구역 수행의 큰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를 줄줄 읽는 연사들의 속도가 동시통역으로 따라
가기 어려울 때임” (I9)

“대부분의 경우 사전에 통역사에게 텍스트를 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원
고를 낭독해도 된다는 연사의 착각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며, 이 어려움은
특히 동시통역에서 가중됨” (F10)

“연사의 속도와 텍스트를 보며 구역을 하는 속도를 맞추는 게 어려움”
(I7)

“수십 장에 달하는 논문을 전달받았는데 발표 시간이 유독 짧은 경우 연
사의 발화 속도가 너무 빨라 따라가기 어려우며” (F1)

“연사가 텍스트를 모노톤으로 시선 접촉 전혀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읽
어나감” (F11)

“한영의 경우, 사전에 번역해 놓은 번역문에 집착을 해서 흐름에 오히려 방
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연사의 말 속도와 번역해 놓은 번역문의 길이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I3)

“텍스트를 보며 하는 경우, 청취에만 의존할 때보다는 더욱 상세하게 통역을 하게 되어 통역 시간이 길어지고 (연사의 속도를 못 맞출 때가 있으며)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문장을 보다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김” (I8)

3) 한국어 및 언어구조적 차이가 처리에 어려움을 가한다

응답자 중 5명은 문어 텍스트의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 텍스트의 압축적인 표현 등이 한영 동시통역식 문장구역에서 부담을 가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또 다른 응답자 5명은 한국어와 영어 간 문장구조의 차이를 어려움으로 지적하였고, 이 중 다수는 한국어의 동사 위치로 인해 처리가 힘들다고 답하였다.

“문서화 되어 있는 글은 간결하고 압축적인 경우가 많아 미리 초벌 번역 정도를 해두는 게 따라가기 쉬움” (I1)

“한국어 고유의 표현이 자주 사용되면 그 표현에 집착하여 통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 표현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 한국어의 틀에 얽매이게 됨” (F1)

“한자, 전문용어 등 축약된 표현이 많은 한국어를 영어로 풀어가다 보면 연사의 속도를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음” (P1)

“한국어는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텍스트를 숙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연사가 빠른 속도로 ‘달릴’ 경우 영어로 모든 디테일을 풀어주는 것이 버거우며” (F11)

“한국어와 영어 간의 문장구조가 똑같지 않아 백트래킹이 자주 발생” (I17)

“한영 동시를 할 때, 한글 문장은 동사가 뒤에 있어서 미리 내용을 예측하기 힘들다. 그리고 문법을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함” (I10)

“한영의 경우가 한국어 영어의 전혀 다른 문장구조 때문에 연사의 발화 속도에 더 영향을 받음” (F4)

“한영 동시의 경우 동사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많음” (I5)

“한영에서 구조상 동사가 문장 끝에 나오고, 주어가 불분명하며 너무 긴 경우 통역이 어려움” (I16)

4) 시각과 청각 간의 균형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동시통역식 문장구역에서는 청취와 독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응답자 중 7명은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둘 간의 균형이 깨질 경우 통역에 문제가 발생함을 설명한다.

“연사가 슬라이드에 있는 자료 내용을 바꿔가면서(특히 숫자) 얘기할 때, 시각적인 간섭이 많이 생겨 힘들” (I12)

“텍스트가 있으면 텍스트에 더 의지를 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져 연사의 말을 한번씩 놓칠 때가 있음. 텍스트에 의지하고 싶어지는 유혹과 영어텍스트의 어순치리 프로세스와 청취프로세스가 뒤엉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을 겪기도 함” (I15)

“연사의 말을 들으면서 글도 읽어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분산되는 어려움” (F5)

“눈으로 따라가기와 청취를 오가야 하는 문제” (F12)

5) 주어진 자료의 완성도 혹은 준비 시간의 부족으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다

응답자 중 2명은 표현 혹은 번역의 측면에서 사전에 받은 텍스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또 다른 응답자 2명은 숙지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주어지는 자료는 수행에 오히려 훼방이 됨을 설명한다.

“한국어 표현/문법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많음” (F7)

“도착어로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줬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
을 때” (I12)

“회의 시작 직전에 원고가 주어지면 친숙한 내용이면 도움이 될 수도 있
으나 생소한 내용의 경우 오히려 더 방해가 되기도 함” (I13)

4.2. 교육 경험과 교수법적 제언

본 설문조사의 마지막 항목은 문장구역 교육을 주제로 다루었다. 석사 재학 당시 문장구역을 수업에서 접한 응답자는 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30%로 나타났다. 이들이 문장구역을 접한 과목은 동시통역(12명), 순차통역(8명), 번역 수업(1명)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교강사로부터 접한 문장구역의 방식 혹은 기술에 대한 응답은 <표 5>와 같다.

<표 5> 석사과정 수업에서 배운 문장구역 전략과 기술

대학원에서 교강사는 어떠한 문장구역의 전략/기술을 가르쳤습니까?	응답수
문장을 의미 단위로 자르고 아이디어가 끝나는 곳에 사선 표기	12
보이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통역하는 전향식 기법	7
의미단위 혹은 짧은 문장을 연결하기	4
동시통역에서 내용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	2
문단 간의 논리적 흐름을 위해 연결어를 활용하는 방법	1
내용을 속독하는 훈련	1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등을 표시하기	1
원천언어의 통사구조에서 탈피코자 품사를 목표언어에서 변환하기	1
듣지 못한 뒷부분을 오역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	1

응답자의 87%는 본인이 받은 석사과정 문장구역 교육이 전무하거나 불충분했다고 응답하면서 예비통역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석사과정의 문장구역 교육이 불충분했던 이유에 대한 의미 범주는 <표 6>과 같이 정리되었다.

〈표 6〉 석사과정 중 문장구역 훈련이 부족했던 이유

석사과정의 문장구역 훈련이 불충분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p>▶ 절대적인 수업량과 훈련 빈도의 부족</p> <p>주로 개인 스터디를 통해 따로 훈련했지 문장구역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없어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I4)</p> <p>문장구역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교강사들이 강조하였으나, 그것을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분은 거의 없었다 (I8)</p> <p>휴학 후 복학을 해보니 과목명이 ‘문장구역’이 들어가게 바뀌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문장구역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안 계심 (I11)</p> <p>개인적으로 문장구역 훈련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함. 문장구역이 청취에만 의존한 통역 연습보다 더 어렵게 느껴져서 수업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훈련이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함 (F5)</p> <p>통역에 비해 문장구역 수업 시간이 양적으로 적었다 (I7)</p> <p>한 학기에 통역 수업에서 문장구역을 한 횟수가 1-2회밖에 되지 않음. 그것도 영-한 문장구역만 해당되고 한-영 문장구역은 수업시간에는 거의 해보지 않음 (P2)</p>	
<p>▶ 체계적인 노하우 전수의 부재</p> <p>체계적인 노하우 전수는 이루어지지 못한 듯 (F1)</p> <p>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해서 혼란스럽다는 느낌만 경험하고 구체적으로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했다 (I3)</p> <p>구체적인 이론과 방법론을 배웠다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F11)</p>	
<p>▶ 현장의 사용 빈도가 교육에 반영되지 않음</p> <p>현장에서는 문장구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종 발생하는 바, 학교에서 조금 더 훈련을 받았다면 도움 됐을 것 (F4)</p> <p>현장에서 쓸 일이 많은 데 비해 훈련이 부족했다 (I12)</p> <p>실무에서는 구역을 해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문장구역을 별도로 심화해서 배웠다면 좋았을 것 (I11)</p> <p>실무에서 동시 및 프레젠테이션 통역이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I16)</p>	
<p>▶ 교육에 사용된 텍스트가 부적절함</p> <p>텍스트(문장)를 보고 하는 문장구역은 배웠지만 PPT 관련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기</p>	

<p>억됨. 하지만 실무에서는 PPT를 많이 사용해 둘 간의 겹이 있었음 (I1)</p> <p>대학원 수업에서는 연설문 낭독 위주의 연습이라 실제 통역 세팅과 괴리감이 있음. 특히 기업이나 비즈니스 세팅에서는 순수하게 연설문을 낭독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I9)</p> <p>개인적인 경험 상, 거의 모든 통역 환경에는 슬라이드 자료가 있는데 그런 환경과 비슷한 형태의 통역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면 업무에 투입되더라도 덜 당황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음 (I12)</p>
<p>▶ 통역 기술 연마를 위한 좋은 연습임에도 충분히 교육되지 않음</p> <p>문장구역을 충분히 연습했다면 실전 통역 기술을 익히기가 더 수월했을 것 (I2)</p> <p>동시통역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음 (P9)</p> <p>문장구역이 위스퍼링 및 동시통역에 도움이 많이 되나 수업시간에는 거의 다루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분위기임. 인하우스의 경우 위스퍼링이 통역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므로 위스퍼링 통역에 대한 연습 또는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문장구역이라고 생각하나 학교에서는 문장구역에 대해 특별히 다루지 않는 편 (I5)</p> <p>최근 들어 인하우스 및 프로젝트에서는 위스퍼링 통역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음. 통역사의 위스퍼링 역량 향상을 위해서 문장구역 만한 훈련은 없다고 봄 (P1)</p>

한편 응답자들은 예비통역사 대상 문장구역 교육에 대한 여러 제언을 하였다. 응답의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1) 훈련의 강도 심화와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2) 문장구역 연습 목적에 관한 제언, 3) 수업에 실무 통역 상황 반영, 4) 구체적인 수행 전략의 교육이라는 4개의 의미 범주가 도출되었다. 응답자들이 제안한 석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제언은 <표 7>과 같다.

<표 7> 석사과정 문장구역 교육 관련 제언의 범주화

범주	내용
<p>훈련의 강도 심화 및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p>	<p>▶ 수업 시간이 확장되고 훈련이 심화되어야 한다</p> <p>의외로 현장에서 문장구역으로 통역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만큼 양이나 질적으로 집중적인 문장구역 훈련이 되면 예비통역</p>

	<p>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I7)</p> <p>현재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과거 석사과정에서는 문장구역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현장에서 텍스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연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낭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장구역 훈련은 꼭 필요하다고 간주됨 (F6)</p> <p>예전에는 ‘텍스트가 있는 동시통역’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동시통역을 하면서 같이 문장구역 연습을 했다고 선배 선생님들께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왜 없어졌는지 궁금. 과목에 없어진 만큼 적어도 모의회의 등 다른 동시통역 실습에서 다루어지면 유익할 것 (F12)</p> <p>실무에서 쓰이기보다는 동시연습의 기초단계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연습으로서도 효과가 참 좋았던 듯 (I11)</p> <p>절대적인 연습/수업 시간을 늘려야 (F5)</p> <p>굳이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이유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함인데 문장구역을 혼자 맨땅에 헤딩하도록 해서 안 될 것 (F9)</p> <p>개별적으로 연습하게 되면 개인의 잘못된 습관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 실무 경험이 많은 교강사의 가르침을 통해 더 빨리 또 더 수월하게 문장구역 통역 기술을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I2)</p> <p>개별적인 연습을 하게 되면 텍스트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으므로 텍스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문장구역이 대학원 과정에서 필요함 (I6)</p>
<p>문장구역 연습 목적에 관한 제언</p>	<p>▶ 통역 능력 증진을 위한 연습 혹은 독자적인 통역 유형의 두 접근을 취해야 한다</p> <p>문장구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므로 실무 통역 대비를 주 목적으로 하되, 동시통역을 더 잘하기 위한 개인 연습의 유용한 방식으로 수업 중 소개되면 좋을 것 (F10)</p> <p>1학년 1학기에는 예비통역사가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통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장구역을 사용하고, 마지막 학기에 다가갈수록 실제 실무 상황에서 텍스트가 미리 주어지는 상황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문장구역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음 (I8)</p>

	<p>졸업 후 통역사로 일하면서, 실제 통역현장에서 문장구역이 빈번히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됨. 따라서 문장교육의 목적을 통역을 위한 연습의 목적, 실무에서 실제 활용되는 문장구역 그 자체로서의 목적으로 구분해야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P2)</p> <p>1학년 1학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순차통역을 위한 문장구역에 초점을 맞춰 문장구역을 배우면 좋을 것. 주제보다는 텍스트의 복잡성에 초점을 맞춰서 복잡한 텍스트의 문장구조를 잡는 법을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 2학년 2학기의 경우, 동시통역 방법을 익히는 수단으로 문장구조보다는 앞에서부터 예측해 나가면서 자연스러운 문장구역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고, 2학년 2학기에는 텍스트를 보며 문장구역을 하면서 동시통역을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듯 (I3)</p>
<p>실무 통역 상황의 반영</p>	<p>▶ 실무 상황을 상징한 훈련이 필요하다</p> <p>그냥 텍스트만 보고 하면 속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연사가 텍스트를 읽고, 그 속도에 맞추어 문장구역을 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함 (P2)</p> <p>학교에서 실제 현상과 유사한 세팅을 경험해볼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 (I9)</p> <p>예비통역사를 배출하는 기관에서 실무에서 ‘주요’ 접하게 되는 통역의 한 형태인 문장구역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 (I12)</p> <p>실제 연사가 텍스트를 읽고, 그 속도에 맞추어 문장구역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P2)</p> <p>다양한 낭독 속도 및 발표 스타일에 대한 연습이 필요함 (I9)</p> <p>실전 상황을 가정하고 순차통역을 연습하듯 문장구역도 하나의 과정으로 배웠다면 실무에 도움이 되었을 것 (F3)</p> <p>자료가 있을 경우, 연사가 발화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세한 설명 없이 화면 이곳저곳을 가리키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음. 이런 통역의 형태를 대학원 과정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 (I12)</p> <p>▶ 실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p> <p>기업의 프레젠테이션(IR, 기업소개, 서비스 제안서 등)자료, 내용이 짝</p>

	<p>빠한 외국 연사의 대학 강연 등을 연습하면 좋을 것 (P1)</p> <p>파워포인트를 참고로 하여 통역. 그러나 보수적인 의미의 스크립트 구역 연습과 병행하면 좋을 듯 (I11)</p> <p>짜여진 형태의 연설문 원고부터 시작, 원고가 아닌 PPT 자료를 활용한 발표라든지 학술 논문 등의 연습을 고려할 수 있을 것 (F4)</p> <p>외교/국제는 연설문 위주, 금융/경제는 연설문과 PPT로 연습 (F7)</p> <p>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이공계열, 금융)로 연습 (F8)</p> <p>다양한 주제의 텍스트로, 실제 통역 시 어려움이 있는 PPT가 아닌 텍스트로 연습. 특히 가장 어려운 상황인 논문에 대한 노출도 해주면 도움이 될 듯. 경제보다는 인문 텍스트의 문장구역이 어려운 것 같음 (F1)</p> <p>텍스트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위주로, 회계 등 실무에 가까우면서 필히 자료가 주어지게 되는 주제로 연습 (I11)</p>
<p>구체적인 수행 전략의 교육</p>	<p>▶ 다양한 사전 준비 시간을 상정해야 한다</p> <p>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텍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의 요령을 가르쳐야 (F6)</p> <p>기사문 등 문장이 길고 어려운 텍스트를 준비해 미리 읽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구역하는 연습 (I11)</p> <p>자료를 미리 다 주고 공부해서 하는 연습 필요함 (I9)</p> <p>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장구역(텍스트가 미리 주어진 경우, 현장에서 주어진 경우)이 요구되기 때문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 (F5)</p> <p>실제 동시통역 상황에 가깝게,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처음 접하는 텍스트를 구역하는 연습이 필요 (I11)</p> <p>▶ 분절 연습과 속도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p> <p>동시의 경우 많은 내용을 담은 문장도 의미단위로 끊어가며 문장을 짧게 구성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 전수 (F11)</p> <p>임원회의 같은 경우 자료를 매우 빠른 속도로 읽어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료를 미리 보지 못한 경우, 듣고 이해해서 자연스러운 도착어로 통역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때 많음. 이런 경우를 대비해 학교에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큰 도움이 될 듯 (I12)</p>

<p>바로 연설문 등을 보고 연사가 읽기 시작할 때 내용을 놓치지 않고 통역할 수 있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 배양을 수업 목표로 삼아야 (F7)</p> <p>실제로 문장구역 텍스트를 주고 연사가 빠른 속도로 읽는 경우를 재현하여 훈련하도록 해야 함 (F6)</p> <p>빠르게 숫자를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함 (I9)</p> <p>▶ 청취와 결합된 형태의 문장구역 연습이 필요하다</p> <p>노트테이킹을 주어진 하드카피 자료와 잘 접목시키는 훈련이 있으면 좋을 것 (I12)</p> <p>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역 능력 배양을 수업 목표로 (F11)</p> <p>▶ 문장구조와 어순에 따른 언어적, 시간적 효율을 꾀할 기술이 전수되어야 한다</p> <p>다루는 언어의 구조나 순서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문장구역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전수되면 좋을 것. 문장구조와 특성상 말을 절약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체계화해서 가르치는 것도 좋을 것 (P2)</p> <p>특히 영어에서 한국어로 갈 때에는 특정 영어 문장 구조나 표현의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한국어 구조를 미리 정해두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 좋겠음 (I4)</p> <p>▶ 목표 언어의 표현 및 재구성 능력향상 연습이 필요하다</p> <p>아웃풋으로 나오는 언어 표현을 다양하게 익히고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 (I10)</p> <p>어떤 주어로 시작해도 문장 만들 수 있도록 하기 (F9)</p> <p>문장을 짧게 끊어서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함양 (I10)</p>

5. 결론 및 제언

본 예비설문의 결과는, 실무 통역의 한 유형으로서의 문장구역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교육 및 훈련 강화라는 본고의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실

제로 문장구역이 통역사들의 업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실무 통역 유형임이 밝혀졌으며,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실무 기술로서의 문장구역의 중요성과 석사과정의 예비통역사 교육에서 문장구역 훈련이 강화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석사 통역 교육기관을 위한 교육적 제언을 제시 하자면 하기한 바와 같다.

첫째, 문장구역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기관의 경우, 문장구역을 커리큘럼 내에서 독자적인 과목으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통역 과목 내에 편입시켜 실무 필요에 부응하는 문장구역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통역 과목 내에 문장구역을 포함시킬 시, 교과목의 명칭과 교과목개요의 모호성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때 문장구역이라는 명칭이 과목명에 포함된 이상 교강사들이 수업에서 이를 반영 및 적용토록 문장구역 연습의 필요성, 기간, 목적 등을 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장구역은 통역 능력 증진을 위한 연습 수단과 실무 통역 유형이라는 이중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 두 기능 모두를 통역사 교육에 두루 활용하되, 실무 통역의 한 유형으로서의 문장구역 교육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순차통역식 문장구역의 실무 활용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순차통역 수업에서의 문장구역 훈련이 요구된다. 결국 통역 수업에서 각 학년과 학기 별로 문장구역의 용도, 목적 및 연습 방식을 차별화하여 점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무 통역인 문장구역 교육의 구성요소가 보다 정교화/체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설문 분석을 통해 드러난 기존 교육과 실무 환경 간의 간극이 좁혀져야 한다. 특별히 문서의 종류, 수반되는 통역 유형, 낭독 속도, 사전 준비의 측면에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훈련이 고루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언어 별로 구문의 특성이 야기하는 해석과 처리상의 어려움을 유형화하여 극복 방안을 학습자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장구역 즉 텍스트를 보며 해석하는 방식이 통역 실무, 그 중에서도 프리랜서 동시통역과 프로젝트 위스퍼링 통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석사 2학년 교과목에서 문장구역 훈련이 보다 심화되어야 한다. 이때 프리랜서, 프로젝트, 인하우스라는 근무 유형에 따른 통역

및 텍스트 유형의 실무 편차를 고려하여 각각의 상황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응답자들이 제시한 교수법 제언에 귀기울여야 한다. 즉, 연사를 상정하고 시각 텍스트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실무에 가장 근접한 훈련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각 텍스트에 대한 사전준비 시간 역시 다양화하여, 학습자들이 각 상황에 맞는 준비 전략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문장 분절과 통역 속도 증진 등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 기술이 훈련되고 전수되어야 한다.

문장구역의 교육 및 교수법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처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을 뿐,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수행의 실재를 파악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자는 현직 통역사들의 문장구역 수행 환경 및 업무의 실재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물론 본 설문 조사에 참여한 30명 남짓한 응답자 수로 인해 보다 포괄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으며, 특별히 프로젝트 통역이라는 형태로 근무하는 통역사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본고에서는 문장구역을 광의적으로 정의한 바, 실무에서 사용되는 광의 및 협의의 문장구역에 대한 보다 세밀한 구분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본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문장구역 실무의 실재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보다 궁극적으로는 예비통역사들의 석사과정 문장구역 교육의 구성요소가 명확히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본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통역을 가르치는 교강사 및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대학원 차원에서 문장구역 교육의 강도와 방식에 대한 해안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문장구역에 대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선행 연구의 정의 및 유형분류가 학계에서 보다 체계화되어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곽중철 (2012) 『곽중철의 통역 강의록 - 학부에서 대학원까지』,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김선아 (2005) 「학부제에서의 한중통역교육 - 현황 및 교육방법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33: 149-167.
- 김혜림 (2011) 「문장구역 수업에서 자기평가 활용 모델 연구」, 『중국연구』 53: 1-23.
- 방교영 (2003) 「접속사 문의 문장구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7: 107-123.
- 정혜진 · 이태형 (2004) 「멀티미디어 어학실에서의 대학 통역교육」, 『통역과 번역』 6(2): 127-150.
- 신경선 (2009) 「대학 중국어 교육에서의 통역 수업 활용 방안」, 『중국언어연구』 30: 487-506.
- 안인경 (2007) 「한국외대 통역번역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고찰-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0(2): 85-103.
- 안희영 (1993) 「문장구역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논문집』 4: 69-83.
- 손지봉 · 김영민 · 안희정 옮김, 양청수 (2007) 『통역교육연구: 이론과 실천』, 서울: 한국문화사.
- 정혜연 (2007) 「연상작용을 통한 문장구역- 통역교육에의 시사점」, 『통번역학연구』 10(2): 105-126.
- 조상은 (2011) 「ST(Sight Translation) 훈련을 중심으로 한 학부 통역교육 제안」,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3(1): 89-115.
- 조재영 (1990) 「진향식 영-한 문장구역」,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집』 23: 227-245.
- Biela-Woloncej, Aleksandra (2007) 'A-vista: New Challenges for Tailor-made Translation Types on the Example of Recorded Sight Translation', *Linguistics: Germanic and Romance Studies* 57(3): 30-39.
- Edwards, Alicia (1995) *The Practice of Court Interpreting*, Philadelphia: J. Benjamins Translation Librabry.
- Erickson, Andrew, Janet Bon, Nancy Festinger Nancy, Isabel Framer and Ann Macfarlane (2006) 'Modes of Interpreting: Simultaneous, Consecutive and Sight Translation', *National Association of Judicial Interpreters and Translators(NAJIT) Position Paper*.
- Ersozlu, Elif (2005) 'Some Suggestions on Sight Translation Teaching',

- Translation Journal* 9(4). <http://accurapid.com/journal/34sighttrans.htm>
- Gile, Daniel (1995) *Basic Concepts and Models for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ing* (8th edition),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Ilg, Gerard & Lambert, Sylvie (1996) 'Teaching Consecutive Interpreting', *Interpreting* 1(1): 69-99.
- Jeong, Cheol-Ja (2005) 'Learner Needs Analysis for T&I Program Reform', *Meta*, 50(4): 1-17.
- Jiménez Ivars, María Amparo (2008) 'Sight Translation and Written Trans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Causes of Problems, Strategies and Translation Errors within the PACTE Translation Competence Model. *Forum*, 6(2): 79-104.
- Karlik, Jill (2010) 'Interpreter-mediated Scriptures: Expectation and Performance', *Interpreting* 12: 160-185.
- Lambert, Sylvie (2004) 'Shared Attention during Sight Translation, Sight Interpretation and Simultaneous Interpretation', *Meta* 49(2): 294-306.
- Phelan, Mary (2007) 'Interpreting, Translation and Public Bodies in Ireland: the Need for Policy and Training', *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on Racism and Interculturalism (NCCRI) Policy Report*.
- Sampaio, Glória (2007) 'Mastering Sight Translation Skills', *Tradução & Comunicação* 16: 63-69.
- Standfield, Charles (2008) 'A Practical Guide to Sight Translation of Assessments', *Second Language Testing, Inc. Rockville, MD*.
- Wadensjö,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don/New York: Longman.
- Weber, William (1990) 'The Importance of Sight Translation in an Interpreter Training Program', in Bowen, David & Bowen, Margaretta (eds.) *Interpre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44-52.

<부록>

설문지

<실무 경험>

1. 청취에만 의존해서 하는 통역이 아닌,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 문장구역 형태의 통역을 본인의 실무 환경에서 접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적인 퍼센트지를 말씀해 주세요.(여기서 텍스트란 모든 시각 자료를 의미합니다))
2. 연사의 말을 청취함과 동시에 텍스트를 보고 하는 형태와 연사 낭독 없이 텍스트만 보고 통역하는 형태 중 어느 쪽이 더 빈번합니까?
3. 주로 접하는 문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예: 낭독용 연설문 원고, 학술 논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talking points, etc)
4. 본인의 근무 형태(인하우스, 프로젝트, 프리랜서 등) 혹은 통역 유형(순차통역 vs. 동시통역 vs. 위스퍼링)에 따라 문장구역을 접한 빈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있다면, 문장구역을 가장 많이 접한 근무 형태 혹은 통역 유형은 무엇입니까?

<수행의 어려움과 전략>

5. 평소 문장구역 혹은 텍스트가 있는 통역을 수행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소상히 적어주세요. (통역 유형 및 언어 방향 등)
6. 통역 현장에서 텍스트가 통역 수행 직전에 주어지는 경우를 종종 접하십니까?
6-1. 답이 “예”라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문장구역 교육>

7. 통번역대학원 재학 시절, 교과목의 일환으로 문장구역 수업을 받았습니까?
답이 “예”라면

- 7-1. 어떤 과목에서, 어떤 목적으로 받은 훈련입니까?
 - 7-2. 교강사는 어떠한 문장구역의 방식 혹은 전략/기술을 가르쳤습니까?
 8. 석사 재학 당시 대학원에서 받은 문장구역 훈련은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9. 실무 통역을 위해, 예비 통역사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문장구역 훈련을 받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혹은 문장구역은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개별적인 연습을 통해 습득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보십니까?
 10. 본인의 문장구역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통역사들을 대상으로 한 문장구역 교육에 어떤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Abstract]

**A Qualitative Analysis of Interpreters' Sight Translation
Experience and Pedagogic Suggestions**

Hong, Sul-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ight translation serves various functions within graduate-level conference interpreting programs. It is at once a tool for selecting interpreters, a pre-exercise for refining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interpreting skills, and a form of professional interpreting in its own right.

Calling for more focused and comprehensive training of sight translation as a form of interpreting to future interpreters, this paper attempts to identify aspects of interpreters' sight transla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practice.

To this end, an open-end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31 interpreters with Korean and English as their working languages. Questions were raised in areas involving the degree of exposure to sight translation, text types and modes of interpreting that are linked with the act, graduate-level sight translation training received, and pedagogic suggestions. Based on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responses, areas for strengthening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sight translation is proposed.

▶ Key Words: sight translation, interpreting with text, questionnaire survey, qualitative data analysis

홍설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강사

harahong@daum.net

관심 분야: 통번역학, 통역 교육, 질적 연구

논문투고일: 2012년 8월 7일

심사완료일: 2012년 8월 29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18일